

우주보다 복잡한 아이들과 함께 30년

# 그래도 학교가 희망이다

차례

머리말

소개1 후배 교사들을 생각하며

## 1부 세월이 준 선물

초임지의 J선생님

소개2 “선생님이 너한테 잘못했구나!”

학교의 3월

소개 3 수업을 버린 후 비로소 교사가 되었다

“엄마가 없으면 이런 짓해도 되는 거야?”

할머니의 심부름 교육

20세기의 학교는 없다

꿈이 없는 자유

미추홀의 사계

어바우트 타임

아들을 키우며

## 2부 길을 잃은 학교

벽관에 갇힌 교사들

소개 4. 스펙으로 무장한 수재

SKY캐슬에 갇힌 부모

교사가 될 수 없는 교사

소개 5. 심리적 심정지를 겪는 아이들

공존을 거부하는 교실

베테랑이 될 수 없는 교사

유리창을 깨는 아이

협박당하는 교사

예비 학부모와 늙은 호박

소개6. 길을 잃은 아이들

말하는 이기심과 말하지 않는 이기심

학교는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다

잡무도 교육이다

## 3부 그래도 학교가 희망이다

희망 프로젝트

H의 졸업식

노래도 가르쳐야 한다

후배가 배운다

소개7. 서성거림의 교육

창영동 마음 충전소

인재를 키우는 기쁨

강강술래 수업

수업 속의 작은 수업

벽향궁촌 부곡리

아이들이 희망이다

상생과 공존의 수업

작은 거인

정 떨어지는 마녀선생

## 4부 우리가 꿈꾸는 학교는

소개8. 입시설명회

죽음을 가르칩니다

동료를 넘어선 스승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행복한 교육

교실의 실내화

작은 희망

학력 격차 속에서 본 별빛

에필로그

희망을 위해

## 머리말

### 머리말

### 후배 교사들을 생각하며

칠판이 화이트보드로 바뀌고 분필이 보드마커로 바뀌었지만 학교는 3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학교는 해마다 봄이 오기 전 졸업생들이 떠나고 신입생들을 맞는다. 10월부터 4월까지 내복을 입어야 할 만큼 여전히 학교는 춥고 복도는 어둡다. “친구 간에 싸우지 마라.” “욕하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침 뱉지 마라.” “남을 배려하며 살아라.”는 훈화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변한 듯 변하지 않은 학교에서 날마다 아이들 심장 가까이에서 그들과 시선을 맞추려고 종종거렸다. 그러는 사이 30년이 지났다. 진심을 다해 가르치는 것을 숙명이라 여겼던 30년이었다. 5G 시대에도 2G의 감성을 가져야 견딜 수 있는 일터인 터라 학교에서의 하루하루는 늘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소박하고 나날이 풍성했다. 흑백사진 같은 이 공간에서 나는 ‘살아 있어서’ 가르칠 수 있었고 우주만큼 복잡한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을 만나 울고 웃었다.

나를 학교 선생으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어쩌면 유년기의 작은 기억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사방이 학교로 둘러싸인 답동 골목에서 유년을 보냈다. 학교 담장 너머로 희망처럼 시종소리가 넘어왔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월미도로, 자유공원으로, 수인역 앞 곡물 창고로 뛰어다녔다. 뛰놀다 어스름 저녁이 되어 골목에 들어설 때도 시종소리가 들리곤 했다. 그러나 이때 나는 단 한 번도 쉼 중턱까지 학교의 시종소리가 따라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명량한 유년의 시종소리는 교사가 된 이후 걱정과 한숨의 소리로 들릴 때도 있었지만 허우적거리며 사는 동안 내 생활을 지배했다. 시종소리를 들으며 숙제하듯이 한 해 한해 지내다 보니 30년이 훌쩍 지나가버렸다.

신을 뒤로 하고 이순(耳順)으로 가는 길목에 서서 이제야 고백한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서 참 다행이었다고. 교직 30년은 앞만 보고 맹목적으로 달려야 하는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는 변방의 삶이어서 좋았다. 학교는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는 곳이었다. 많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 공간을 중심으로 서로 모이고 부딪혔다.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하루하루였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나도 성장했다. 지난 30년 나는 해마다 유년기 긍정의 시종소리를 자양분 삼아 「희망을 만드는 교실」이라는 숙제에 매달렸다. 혼신을 다했지만 숙제는 늘 미완성 상태로 남았다.

이제 30년간 지속해 온 숙제를 마치고 새로운 과제를 찾기 위해 호흡을 고르고자 한다. 너무 늦은 고백이었을까. 떠나기 위해 고개를 들어보니 끓는 물 속의 개구리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희망을 잃어가는 교실이 보인다.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조차 쉽게 꺼내기 어려운 얼어붙은 공간. 교실은 어느 순간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공간이 아닌 갈등의 공간이 된 것만 같다. 교실은 아이를 위로하기 위한 몇 마디의 충고조차 화살이 되어 다시 교사를 저격하는 어처구니없는 공간이 되고 있다. 묵은 숙제를 다 끝내지 못했다는 무거운 마음이 든다. 그동안 만났던 정 깊은 학부모와 제자들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모습도 어른거린다. 올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 교사들의 고뇌와 갈등도 떠나는 발길을 붙든다.

비록 학교를 떠나지만 ‘학교가 있어야 희망이 있다.’는 믿음은 굳건하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다는 신념도 변함없다.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사회의 희망은 성장하는 아이들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삶을 통째로 드러내어 난도질했다. 어쩌면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봤던 소심한 교사의 삶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자기 위로 속에 또 다른 시종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자기 길을 걷고 있는 후배 교사들을 위해 용기를 냈다. 그이들은 나를 딛고 큰 걸음을 걸으리라.

끝으로 지나온 기억을 책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을 때 최상의 격려로 용기를 준 남편, 엄마가 너희들의 철 없던 행동을 책에 쓸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때 기꺼이 허락해 준 두 아들, 그리고 원고를 빠짐없이 읽고 고민을 나눈 이 글의 첫 번째 독자 김신철 씨에게 감사를 전한다.

세월이 준 선물-----

“선생님이 너한테 잘못했구나!”

작은아이를 키우며 막다른 길을 만났다. 교사로서 부모로서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3교시 수업을 끝내고 교무실로 들어오는 데 책상에 둔 휴대폰이 울렸다.

850국이다. 내가 사는 동네의 전화번호 첫 자리이다.

“여보세요.”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린다.

“나라 어머니신가요.”

나라는 작은애의 이름이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나라 담임 교사입니다. 학교로 오셔야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 근무 중인데 지금 가야 하나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죠. 아이가 다쳤나요.”

순간적으로 나는 아이가 다쳤다고 생각했다.

장난꾸러기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 다쳐서 병원 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시도 때도 없이 넘 어지고 부러지는 아이들이었기에 태어난 척했지만 가슴이 콩닥거렸다.

담임 선생님이 수업 중에 전화를 할 정도면 ‘크게 다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나라가 잘못된 일이 있어 야단을 쳤는데 아이가 저에게 욕을 했어요. 어떻게 선생에게 그럴 수 있어요. 나라는 지금 교무실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데리고 가세요.”

담임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이 들자 선생님이 하는 다른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무엇보다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터라 낮이 화끈거렸다.

창피스러움과 자존심의 상처로 학교에 가서는 전후 사정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죄송하다고만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교무실에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아이는 풀 죽은 얼굴로 내 눈치를 보면서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선생님한테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밤새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새기느라 잠을 거의 못 잤다. 계속 눈물이 흘렀다. 일을 가진 것,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운 것, 나의 빈틈없는 성격, 공부를 더 하겠다는 내 욕심.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았다. 아이를 키우면서 꾸던 꿈이 그날 밤 허물어져 버렸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었다. 뽀얀 피부와 꿈틀거리는 발가락이 사랑스러웠고, 어찌다 웃는 웃음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하루하루 쑥쑥 커가는 모습도 그렇고 어록으로 정리하고 싶을 만큼 기특한 말을 쏟아내는 것도 신기하고 자랑스러웠다. 내가 해보지 못한 많은 것을 내 아이는 경험하게 하고 싶다는 소망도 생겼다. 아이들만 바라봐도 배가 불렀다. 내 아버지의 딸에 대한 허세와 기대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다. 단명한 부모의 삶을 떠올리며 적어도 이 아이들 곁을 오래 지켜야겠다는 소망도 가졌다.

태어났을 때 엄마라는 소리조차 낯설었던 큰아이는 서툴게 키웠고 그만큼 어려웠다. 아이 키우기에 익숙해진 탓인지 작은아이는 핏덩이 때부터 예뻐다. 크면서 엄마밖에 모르는 아이고 딸

처럼 살가웠다. 누웠다가 뒤집는 것도, 기는 것도, 걷는 것도 형보다 2달씩은 빨랐다. 3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야 하고 한 번 깨면 등에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야 다시 잠이 드는 형과 달리 작은아이는 밤 10시에 잠들면 아침 6시까지 깨지도 않고 잘 잤다.

정직하고 총명한 형과 달리 때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공부도 겨우 따라가는 정도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지없이 착하고 예의 발랐다. 차에 치였거나 길에 다쳐서 누워 있는 개나 고양이는 그냥 못 지나쳐 동물병원에 데려가기 일쑤였고, 유난히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재우고 먹이기를 좋아했다. 이웃에게 항상 공손하게 인사하는 아이가 인상적인 이웃들은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잘 키웠냐.’고 물어 나를 으쓱하게 했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간 후 조금씩 잡음을 일으키더니 급기야는 담임 선생님께 욕까지 하고 만 것이다. 밤새 불행의 늪에 빠져 있던 나는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기로 결정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덤덤해졌다.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는 거듭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며칠 데리고 있을 테니 무단결석 처리를 하시라며 전화를 끊었다. 막다른 곳에 서면 사소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날 또 한 번 경험했다.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무단결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행선지도 말하지 않고 아이를 차에 태우고 30분 거리의 할머니네로 차를 몰았다. 아이는 뒷자리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엄마의 표정에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럴 때 ‘친정이 있었으면’ 나를 위로해 줄 누군가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다. 고립무원의 절박감과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생각이 나를 아흔의 노할머니 집으로 이끌었다.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미달이문을 드르륵 여니 할머니가 빠끔히 내다보시고 놀라셨다. 평소에 자주 오지도 않은 손녀딸이 증손자를 데리고 아침에 온 것이 예삿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전기료를 아끼느라 항상 꺼져 있던 방에 불이 켜졌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오는 나와 아이를 번갈아 보셨다.

“이 아침에 무슨 일이냐?”

난 가까스로 울음을 참으면서

“전 다시 학교에 들어가 봐야 하니 할머니가 잠깐만 애를 데리고 있어 주세요. 애가 담임 선생님께 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학교를 안 보내려고요.”

할머니는 그윽한 눈으로 아이를 한참 동안 쳐다보셨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이 너한테 잘못했구나!”

아이는 지금까지 태도와는 너무 다른 공손한 태도로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아니요.”라고 답했다.

여태 선생님이 자기한테 너무했다고 변명과 자기방어에 힘쓰던 아이가 할머니의 그 한 마디에 무너진 것을 보고 나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생각해보니 어제부터 지금까지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왜 그랬는지 따뜻하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내 자존감의 상처만 생각하고 이 일로 파생될 결과와 해결에만 집중했다.

‘왜 나는 저러지 못했을까. 공감해주지 못했을까.’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다.

공감은 꾸중보다 힘이 켜다.

세월이 준 선물-----

## 수업을 버린 후 비로소 교사가 되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2년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그날 나는 혼자 떠들었다. 수업은 엉망이었다. 인천 최고의 명문으로 부상 중인 S고 3학년 교실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2년 만의 수업이었다.

남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었다. 다시 새내기 교사가 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다. 임시 반장이 일어나 인사를 했다.

“차렷”

“경례”

오래 떠나있었던 교실이지만 변하지 않은 인사와 학생들의 표정에 다소 안심이 되었다. 진도 나가기에 급한 고3 교실이기에 수업을 시작했다. 며칠씩이나 준비한 강의 내용이었다.

수업을 시작하고 10분이 되지 않아 한두 명씩 눈꺼풀이 감기더니 급기야 절반 이상의 학생이 책상에 엎드렸다. 어떤 학생은 책상을 쭉 밀더니 교실 바닥에 가래침을 뱉기까지 했다.

돌아온 교실 교단에 서서 나는 수치심에 떨었다. 졸고 있는 학생을 깨우지도 못하고 혼자 떠들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해 견딜 수가 없었다. 수업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교실을 나왔다. 1997년 봄날의 일이었다.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반 이상의 학생이 책이나 노트가 없었던 것이 기억났다. 준비된 수업

내용 자체가 그림을 봐야 이해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아이들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진도 나가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교실에서는 책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을 위해 필요한 그림을 학생 수만큼 준비했다. 그러나 변함없이 아이들은 었어졌다.

다음 수업시간에는 강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유머도 따로 준비했다. 수업과 관련되어 소개할 기사 내용도 준비했다. 주의를 끌기 위한 실험도구도 몇 개 들고 갔다. 수업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처음 초롱초롱한 눈으로 수업을 받던 아이들도 30분이 안 되어 었드리거나 책 안에 눈을 숨기고 잠들었다. 절망감이 몰려왔다. 수업 내용이 무엇인지, 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자거나’ 또는 ‘조는’ 아이들의 인원은 변했지만 몇 명이라도 수업시간에 잠을 청한다는 것만으로 교사로서의 자존감은 이미 무너졌다.

그렇게 인천 최고의 명문으로 부상 중인 S고 3학년 교실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대학원을 다니며 공부로 지식이 풍부해지니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도 없어졌고 교사로서의 운명에 처음으로 순응했다. 재교육을 받은 기회에 감사하면서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리라 다짐하며 돌아왔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교실은 내 상상력 범위 바깥에 있었다. 겨우 2년 만에 수업 환경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생물 관련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 몇은 ‘생물 오타쿠’가 되어 수업에 열중했으나 대부분의 학생은 시작종이 울리면서부터 자세가 무너졌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무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만으로 교사로서 사형선고를 받은 느낌이었다.

부적응교사로 산다는 느낌에 수치스러움이 밀려왔다. 출근 시간만 되면 마음이 무거웠다. ‘오늘은 어떻게 그들을 태연한 척 대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무 애쓰지 마. 그 아이들 밤새 공부해서 피곤해서 그래.”

“자는 아이들 어차피 대학을 못 가. 잘하는 아이들만 데리고 해야지.”

아이들을 깨우는 데 지친 교사들은 이런 말로 서로 위안을 주고받곤 했다. 반복되는 회의감으로 지쳐있던 나는 남자 고등학교가 태생적으로 안 맞는다는 논리적 결론을 내렸다.

교장 선생님을 만났다. 수업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여학교로 자리를 옮겼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도와주실 것을 청했다.

“선생이 그러면 안 되지. 어떤 학교든 같아. 참아 봐, 그래야 진짜 선생이 되는 거야.”



교장 선생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죽을 것 같은 맘에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그 말뿐이셨다.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 이후 부끄러움은 더 커지기만 하였다. 말도 안 되는 결론으로 도망치려 했다는 생각이 보태지자 하루하루가 괴로웠다.

그 시기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로지 내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어느 순간 ‘내가 변해야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어떻게 수업을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하는 말이 수면제가 된다면 ‘아이들이 말하게 하면 된다.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처음으로 수업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긴 고민 끝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티칭, 그 유서 깊은 수업을 버리기로 했다. 우선 50분 수업을 여러 개로 나누었다. 10분이나 15분으로 나눠 과제를 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한 후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시간을 재구성하고 교재를 만들었다.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옆에 가서 개인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참여도를 높였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은 낮은 학생을 도와주게 했다.

한 시간 수업의 밀도가 이렇게 높아지자 할 일이 너무나 많아졌다. 배우는 학생도 바쁘고 가르치는 선생도 바쁜 수업이었다. 수업 후에는 수업의 증거를 모아 정리하게 했다. 정리를 못 하는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같이 가지고 와서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 ‘티칭’을 버리고 ‘코칭’을 선택해 나갔다. 수업방식이 전환되자 고 3교실조차 활기가 돌았다.

이 새로운 시작은 교사가 되어 얻은 2년간의 재교육시간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기도 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궁리하는 과정에서 2년간 배운 이론을 가져다 쓰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었다. 강의식 수업을 버리고 다양한 수업이론을 들고 와서 수업에 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 머릿속에 ‘선 개념’을 우선 만들었다. 만들어 놓은 개념을 엮어 스스로 유의미한 학습을 하도록 도와주는 수업도 만들어 보았다.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내용에 의문을 갖게 한 후 수업을 계획하기도 했다.

아이들도 재미와 의미를 느껴야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그때 깨우쳤다. 나를 무시하거나 전 날 밤잠을 못 자서 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우쳤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무사히 선생

생활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천우신조의 일깨움이었다.

길을 잃은 학교-----

## 스펙으로 무장한 수재

K가 교무실을 점령했다. 어제저녁 인문사회과에서 치러진 토론대회 예선에 대해 큰소리로 항의 중이다.

“선생님, 어제 과학과 토론대회 결선에 참여하느라 사회과 토론대회 예선에 참석 못했어요. 대회 날짜를 미리 조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처럼 2개 행사에 모두 참석하고 싶은 학생도 있잖아요.”

“3월에 이미 공고한 내용이니 너한테 중요한 대회만 참석했어야지. 한 대회는 인문계를 위한 대회이고 다른 대회는 자연계 학생을 위한 대회인 걸 너도 알잖아.”

담당 선생의 설명에도 K는 막무가내다.

“저같이 두 대회 모두 참석하고 싶은 학생도 있잖아요!”

아래위로 눈을 굴리면서 말하는 아이 앞에서 토론대회를 담당한 선생님은 답변을 하면서도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저, 교장 선생님 찾아가겠어요.”

말을 끝낸 학생은 문을 뚝 닫고 교무실을 나갔다.

입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기면서 고등학교에서는 대회와 행사를 만드느라 교육할 시간이 없어졌다. 제도가 처음 시행될 시기에는 학교에 따라 특색 있는 대회가 있었다. 해가 거듭되면서 학생, 학부모, 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대회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졌다. 이제 이 학교나 저 학교나 특색조차 사라지며 행사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수업 외에 남은 시간에 치러져야 하는 대회니 만큼 대회를 치를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딜레마에 빠져 버렸다. 비슷한 성격의 행사는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치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행사 및 대회가 한 달 전에 공고가 되니 K의 항의는 공고 직후에 했어야 했다. 담당교사가 찢찢 땀 일이 아니지만 K는 언제나 교사를 초라하게 만드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

그런 K가 3학년으로 진학한 뒤 대학 추천서를 써 달라고 찾아왔다. 난 K의 추천서 부탁을 거절했다. 학년을 끝내고 마음으로 결별했던 학생이기에 추천서에 응할 수 없었다.

나는 ‘남을 배려하는 것,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정직한 것, 법을 준수하는 것, 정의로운 것, 책임감이 강한 것’ 등과 관련된 기억을 살려 대입 추천서를 쓰곤 한다. 때론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노력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도 기억했다가 쓴다. 친구의 장점을 보고 닮고 싶어 하는 예쁜 마음도 내가 적어주고 싶어 하는 대목이다. 나는 교사 추천서를 쓰면서 성적은 다소 떨어지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지켜보면 비상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내가 본 기억을 살려 미주알고주알 적곤 한다.

추천서를 부탁한 K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였고 매우 박학다식했다. 수업 참여도가 부족한 요즈음의 고등학교 교실에서 활발하게 질문을 하고 교사와 문답을 주고받을 수준이 되니 표면적으로는 매우 활달하고 바람직한 학생이었다. 자연계 학생이지만 역사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요즘 보기 드문 인재였다. 수업 중 논쟁을 좋아하는 K는 자신의 관점과 맞지 않는 교사가 의견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으로 학교 내에서도 유명하다.

교사와의 논쟁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아이들도 K로 인해 수업 진도가 늦어지는 것을 불안해하며 짜증을 내거나 “그만하라.”하고 소리치곤 한다. K는 휴직이나 병가로 인해 결원자리가 생겨 오게 된 기간제교사와는 더 격하게 논쟁을 이어간다. 교무실까지 쫓아오며 악착같이 자신의 우위를 설명하는 K에게서 간간히 입꼬리가 올라가는 경멸의 웃음을 본 적도 있다.

K는 본인이 수업을 독점하여 짜증을 내는 학급아이들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한다. 그러나 학급에서 조금 어리바리한 친구가 드물게나마 선생님께 질문하면 그 친구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곤 하는 것을 보고는 했다. 두려움이 느껴지는 아이였다.

그 아이가 추천서를 원하는 것이다. 난 교사의 양심상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K는 무난하게 명문대에 진학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무난히 합격했다.

성실하고 똑똑한 K는 희망진로를 미리 결정하고 단기간에 준비할 수 없는 항목들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챙겼다. 각종 대회와 동아리 활동 그리고 독서 기록 등 학생부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에 참여하여 완벽한 작품을 만들었다. 때론 두 개의 행사가 겹쳐 참여할 수 없으면 학교 당국에 이의를 제기해 행사를 옮겨서라도 참여하였다. 참여한 대회에서 최고의 상이 아니라 장려상 정도를 주면 교내에 있는 심사위원 선생님들을 찾아가 따졌다. 드물지만 논쟁에 진 선생님의 경우 최종 결재 전에 상명을 뒤바꿔야 하는 굴욕도 당해야 했다.

K는 모든 문제를 논쟁과 투쟁으로 해결했다. 지난해 국정농단으로 재판 중인 대한민국의 ‘인재’들에서 졸업 후 떠나보낸 K의 표정이 오버랩되었다. 을씨년스럽다고 느껴졌던 그 날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는 그 아이보다 내가 옹졸한 사람이었기를 바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길을 잃은 학교-----

## 심리적 심정지를 겪는 아이들

지나고 보니 학교는 변방이 아니고 중심이었다. 사회불안을 미리 예감할 수 있는 시금석 같은 곳이었다.

학교에서 사회병리학적 현상을 만나는 일이 잦아졌다. 아직 10대에 불과한 학생들의 심리적 심정지를 겪으면서 어쩌면 지금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학교에서조차 때를 놓치면 너무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G는 오늘도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뛰어간다. 꾸르륵 소리를 내는 배를 움켜잡고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린다. 라면을 끓일 참이다. 밥통을 연다. 밥은 있다. 밥을 그릇에 푸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 밥을 먹는다. 그 사이 냄비의 물이 끓는다. 냄비에 라면을 넣고 끓인다.

G는 학교급식을 하지 않는다.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 친구랑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경험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그 이후 급식을 하지 않는다. 혼자 밥을 먹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배고픔을 참는 것이다. G는 학교를 떠나려고 마음먹고 있다.

H는 수업일수를 못 채워 유급할 위기에 있다. 담임 선생님이 매일 노심초사하며 아침이면 집으로 전화를 한다. 하루 결석을 하고 며칠 오더니 그다음에는 일주일을 결석하고 몇 주를 쉬었다. 이제는 한 달은 우습게 결석을 하고 있다. 한 번 멈춰버린 생활리듬을 다시 굴리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전화하면 심기일전해서 학교에 온다고 하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자리는 비어 있다. 의지와 목표가 상실된 상태에서 멈추어 있는 것이 습성이 되면서 계속 무기력해지고 있는 것 같다. 무기력과 나태의 관성을 스스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J는 2학년 들어 결석이 잦은 학생이다. 1학년 때까지 최우수 학력을 보이던 학생이었다. 독서량도 많고 어휘도 풍부한 데다가 기억력이 비상하여 학습 성과가 우수하였다. J는 특히 수학을 잘했다. 그런데 2학년에 올라와서 수업시간에 자꾸 었드리기 시작하더니 결석이 잦아졌다. 언제

부터인지 손목을 손수건으로 가리기 시작하였다. 담임 선생님의 의하면 손목을 긋는 일이 있고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한다. 학교에 오면 아무 말 없이 수업 중 잠만 자고 있다.

10여 년 전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서 ‘히키코모리’란 용어를 처음 들었다. 일본 경제 쇠퇴의 원인을 조명하면서 집에 들어앉아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를 조명한 다큐멘터리였다. 용어가 주는 생소함보다 자발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삶에 다소 충격을 받았다. 일본 경제 쇠퇴의 원인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였기에 활력 넘치는 한국의 청소년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낯설기만 했던 ‘히키코모리’들이 내가 가르치는 학교 곳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심각한 것은 해가 지날수록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아이들은 혼자만의 굴속에 자신을 가두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밥조차 혼자 먹는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험이 끝난 후면 수업시간 중 시간을 내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쓰게 해 본다. 장점에 자신이 ‘적극적이다’ 또는 ‘하고 싶은 것은 꼭 한다’와 같이 자존감이 높음을 표현한 학생들이 현저히 줄었다. 반면 ‘게으르다’ ‘소심하다’로 단점을 표현한 학생은 부쩍 늘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소심하다. 누구와 말할 용기도 없어 친구를 못 만드는 아이들이 많다. 혼밥하는 아이들, 우울증을 겪어 팔에 면도칼을 긋는 아이들, 누구와 소통할 줄 모르고 그러한 경험도 부족한 아이들이 교실 곳곳에 있다. 그들의 부모들도 그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이 터져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부모를 흔히 본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이에게 행복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우리야, 넌 언제 행복하다고 느꼈니?”

“엄마, 그때 기억나? 친척들이 모여서 노래방 간 날.”

아이의 분명하고 단순한 대답에 내심 놀랐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려고 맘껏 놀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 여행도 많이 갔다. 그런 엄마의 노력은 무시하고 할아버지의 생신으로 20여 명의 가족이 외식을 하고 저녁을 먹고 노래방을 간 날만을 아이가 인상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다.

아이들이 고립되고 있다. 시험에 찌들고 자존감을 잃고 자기만의 토굴 속에 갇히고 있다.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 길을 잃은 아이들

수업이 이미 시작된 시간에 등교하고 있는 S를 1층 출입구에서 만났다. 한쪽 귀에 걸린 요란한 귀고리와 염색된 머리가 너무나 낯설었다.

‘모범생이 변하는 것도 순간이구나.’

요즘 수업에 들어가면 S 얼굴 보기가 어렵다. 결석이나 조퇴가 너무나 잦다. 두 번에 한 번은 내 수업시간에 자리에 없다. 수업에서 만나는 학생이 늦은 시간에 학교에 오는 것을 보고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먼저 말을 건넸다.

“어디 아프니?”

“아빠한테 핸드폰을 뺏겨서요.”

동문서답이다. 질문에 맞는 답변이 아니어서 잠시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어떤 질문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 순간 아들과 남편이 핸드폰을 가지고 했던 실랑이 장면이 갑자기 떠올라서 대수롭지 않은 척 물었다.

“아빠랑 싸웠구나?”

교사로 살면서 생긴 언어습관. 요즘 아이들을 상대하며 생긴 아이들 같은 언어습관이다. 가능한 한 한 아이들 친구와 같은 말투로 묻고 답해야 한다. 설명을 싫어하는 아이들이라 가장 간단한 말로 한 방 날려야 한다. 상황이 비도덕적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훈계랍시고 말꼬리를 잡아 도덕시간을 만들면 더 이상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

‘아빠한테 혼났구나.’

‘혼 날 짓을 했구나.’

어른의 언어로 물으면 아이들은 날카롭게 경계하며 입을 닫아버린다. 경계하는 마음을 불러오는 질문은 대화를 단절한다는 것을 알기에 아이들 시선의 질문으로 돌직구를 날려야 한다.

우물쭈물하던 아이는 상황을 요약해서 말해준다.

“아빠가 핸드폰을 뺏어서 알람을 못 들어 늦게 일어났어요.”

학교에 늦은 이유에 대해 이해가 되었다. S는 반에서 1, 2등을 할 정도로 공부에 충실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작년 겨울방학부터 부모와 갈등을 빚기 시작하더니 학교 공부를 전폐하고 있다. 성적이 바닥을 치면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아들을 코너로 모는 아버지로 인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치달아가고 있었다. 지각, 결석이 잦아지고 차림새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다. 아이의 일탈을 아버지는 참지 못했다.

“SKY를 못 갈 거 같으면 학교 때려 쳐라.”

아버지를 피해 집을 탈출하겠다고 학교에서 공언하고 다닌다. S의 회복은 어쩌면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첫 부임지였던 인천의 변두리 학교 학급 정원은 50명이 넘었다. 많은 학생들의 부모 학력은 고졸도 드물었다. 당시 학교에 상담 오는 부모들의 꿈은 소박했다. 자식에 대한 바람은 고작 ‘밥 안 굶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놈이 되었으면.’ 하는 정도였다. 그지없이 소박한 부모의 꿈에 놀란 교사는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이 교사의 의무라고 몇 번씩 다짐해야 했던 시절이었다.

그로부터 30년. 이제 대다수 학부모의 학력은 고학력이다. 대졸은 기본이고 석, 박사도 수두룩하다. 자식에 대한 기대는 학벌만큼 커지고 집요해졌다. 대학을 졸업한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자신보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하거나 자기만큼의 대학은 당연히 가야 한다며 길들이고 있다. 자녀의 인생을 쥐락펴락한다. 부모의 욕망과 그로 인한 ‘신념’이 만들어 낸 무형의 울타리에 숨이 막힌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S였다. S는 울타리 경계 밖에서 격렬하게 아버지와 전투를 치르고 있다.

몇 년 전에 만난 M의 아버지는 더 심했다. M은 검찰에 기소되면서 모두를 당혹스럽게 했다. 외고나 자사고가 없던 시절, M은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던 우등생이었다. 그랬던 M이 다른 학교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는 크지 않았지만 절도가 문제였다. S대 법대를 바라보는 수재의 일탈에 학교 구성원 모두 노심초사했다. M의 일탈은 학대에 가까운 아버지의 훈육이 만들어 낸 것이었다.

M은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200개의 영단어를 외워야 한다고 했다. 200개 이상의 외화를 자막 없이 볼 수 있도록 아빠는 아이의 영어교육에 지치지 않고 동행했다. 자고 있는 아들을 새벽마다 깨워 수학 문제를 풀게 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를 들었고 어렸을 때는 빈방에 가두기도 했다. 덕분에 M은 학교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겉으로는 너무나 모범적인 학생이었지만 M에겐 숨구멍이 없었다.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한밤의 질주를 벌인 것은 숨을 쉬고 싶은 본능이자, 아버지에 대한 격렬한 반항인 셈이었다.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숨죽이고 있는 아이들. 아버지의 훈육에 폭주하거나 폭주 직전인 아이들이 학교 곳곳에 있다. 이 아이들을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 같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오늘 수업 중에 전에 없이 소심해진 L을 보았다. 저번 학기부터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L 또한 아버지와의 갈등이 격렬해지고 있다. 공부에 손을 놓고 날마다 게임방을 전전한다고 반 친구들이 내게 귀띔한다. L은 어두운 표정 뒤에 마음을 감춰버렸다.

이 글을 쓰는 도중 3살 아이를 안고 바다에 뛰어든 엄마 소식이 뉴스를 점령하고 있다. 부모는 무슨 권리로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것일까. 미성년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을 접하면서 S, M, L의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까.

-그래도 학교가 희망이다-----

## 서성거림의 교육

깊은 사색의 서성거림 속에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졌듯이 교육도 서성거리며 아이들을 기다려 주어야 한다.

요즈음에는 진지한 수업 태도를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나 조금이라도 아는 단원이면 학생들은 더 무심하다.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수준과 태도도 천양지차이다. 수능 필수과목이 아닌 교과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교과서를 받은 순간부터 공부과목에서 제외시킨 학생이 절반 이상이다. 때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어 관련 문제를 수십 개 이상 풀어보았고 선행으로 끝냈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다.

수준과 태도가 이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나는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우선 나태한 수업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의자를 끌어당기게 하고 차렷 자세를 명령한다. 모든 학생이 집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아주 작은 소리로 수업을 시작한다.

유전에 관한 수업은 멘델의 실험을 소개하면서 시작된다. 나는 칠판에 간단히 멘델의 실험 내용을 요약해 적는다.

“멘델은 보라색 꽃과 흰 꽃을 수정해서 자식을 얻었어.”

칠판을 보면서 그대로 읽는다. 이제 질문이 시작된다.

“자손은 어떤 자손을 얻었지?”

“모두 보라색 꽃이요”

칠판에 답이 있으니 대답은 우렁차다.

“왜 그랬을까?”



학생들의 자신 있는 답변이 이어진다.

“보라색 꽃이 세요.”

“우성이라서요.”

예상했던 답변을 넘지는 않는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므로 우성이나 열성이란 용어는 익숙하다.

“아 그렇구나.”

나는 매우 놀란 것처럼 긍정의 메시지를 준다.

칠판을 보며 다시 질문을 이어간다.

“지금 얻은 그 자손들끼리 수정해서 손자들을 얻었어. 손자들은 어떻게 나오지?”

“보라색 꽃과 흰 꽃이 3대 1로 나와요”

마치 앵무새처럼 되뇌인다. 시험으로 사람을 키운다면 여기에서 멈추면 된다. 다 아는 것을 또 가르칠 필요는 없다.

나는 질문을 이어간다.

“아까 부모세대에서 보라색 꽃과 흰 꽃을 수정해서 얻는 수 백 개의 꽃 모두 보라색 꽃이었는데, 보라색 꽃과 보라색 꽃을 교배해서 얻은 자손에선 왜 흰 꽃이 나온 거지? 이상하다. 왜 그런 거지?”

답변이 없다. 학생들 머릿속에서 모순이 발견된 것이다.

마땅한 답변을 찾으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다.

나는 다시 질문을 이어간다.

“멘델은 유전자란 단어도 몰랐어. 멘델은 이 결과를 얻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멘델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다시 여기저기서 답변이 나온다.

“당황했겠죠.”

“실험을 다시 해봐요”

“훌륭한 답변이다.”

칭찬을 준다.

“아마 잘못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며 같은 실험을 반복해 봤겠지. 그런데 다시 같은 결과를 얻었다면?”

“다시 실험 해 봐요.”

학생들은 자신감을 잃은 채 답변한다.

“그래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해 봤을 거야. 그런데도 같은 결과를 얻은 거야. 다음에 뭘 하지?”

교실은 갑자기 갈 길을 잃는다.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이다. 어디서 작은 소리로 답변이 이어진다.

“고민하겠죠.”

“그래 심각한 고민에 빠질 거야. 이렇게 얻은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고뇌에 가까운 고민이 따르겠지. 우리는 이것을 지적 갈등이라고 하지.”

다시 엉뚱한 질문을 해 본다.

“너희 고민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밥맛을 잃어요.”

“그 생각만 하게 되요.”

“잠 만 자요.”

여기저기서 자기 나름의 답변을 쏟아 놓는다.

“그까짓 고민,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한다고 누가 밥 주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멘델은 왜 계속 고민했을까?”

나는 모른 채 고민을 멈추는 방법을 제안한다.

학생들의 머릿속은 혼란스럽다. 학생들은 본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멈추겠지만 멘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안 것이다. 과학적 원리가 나오기까지 개인이 가졌을 갈등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순간이다.

나는 이때를 기다려 ‘서성거림’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멘델이 이 실험 결과에 대한 합리적 답변을 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새벽에 잠이 깨었을지, 얼마나 오랜 시간 수도원의 정원을 서성거렸을지를. 밥을 먹다가 멈추고 다시 생각에 잠기는 것을 상상해 보라며, 서성거림을 이야기 한다.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과학자가 가졌을 집념과 고뇌를 간접적으로라도 느낄 수 있도록. 몇 명의 학생들이 150년 전 과거로 돌아가 멘델의 고뇌를 체감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그 서성거림의 결과인 통찰을 소개한다.

“멘델은 세포내 유전을 결정하는 무엇(something)이 2개씩 쌍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그것이 분리되어 자손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야. 중요한 것은 이것의 실체를 본 적이 없다는 거지.”

“오랜 서성거림이 없었고, 해결하고자 하는 정성과 집념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은 절대로 안

나오지.”

학생들은 진지해진다. 이 순간을 교사가 놓칠 수는 없다.

“분리의 법칙이란 용어가 왜 나왔을까?”

“분리되어서 나왔기 때문이죠.”

“훌륭하다.”

칭찬을 많이 해 줘도 부족하지 않다. 교과서나 참고서에 나온 글을 아무리 읽어도 이 순간 이 학생이 답한 단순한 답변만큼 정확하지는 않다. 이 학생은 내가 말한 것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서성거림을 통한 과학자의 통찰과정을 전해준 수업을 하고 나와 잠깐 생각에 잠긴다. 오늘의 수업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는가. 오스트리아의 수도사 멘델이 우연히 해 본 실험 결과로 인해 가지게 되었던 고민과 집착으로부터 어떻게 하나의 과학원리가 탄생했는지를 느끼게 해 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수업이었다.

위대한 과학자의 결과물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우연으로부터 탄생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을 깨우치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삶에 투영해 자신이 가진 고민을 사색을 통해 해결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과학수업을 하였다. 누군가의 잠재력과 영감의 예민한 선을 건들 수 있을 수 모른다는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에 언제 왔는지 석이가 옆에 있다.

“아, 석이 왔어? 왜 왔어. 뭐 물어볼 것 있니?”

“선생님, 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자, 궁금한 게 있으면 답을 얻을 때까지 탐구하는 게 과학자의 역할이지. 누구나 과학자가 될 수 있지.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선생님. 공부를 하면서 공부는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 이제야 두근거리는 게 뭔지 알았어요. 공부하고 싶어서 아침에 눈을 일찍 뜨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꼭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헬렌켈러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순간을 가슴 설레는 기적이라고 말했다. 서성거리는 삶을 희망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가슴 벅찬 기적이다.

-내가 바라는 학교-----

## 입시설명회

고등학교 입학 앞둔 수백 명의 예비 학부모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학교장 인사말에 이어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 활동 소개가 끝나고 학부모들에게 질문 시간이 주어졌다.

두 번째 줄에 앉은 남자 학부모가 손을 들었다. 행사를 돕던 학생이 마이크 줄을 끌고 그 남자에게 마이크를 건네준다.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이 학교에 보내고 싶은 중3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지금까지 학교에 관해 소개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특히 학교 동아리나 과학행사 내용에 대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있는 예비 학부모는 예의 바르게 자신을 소개하고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잘 경청했다는 증거로 몇 가지 사례에 대한 칭찬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그다음 그가 하고 싶은 진짜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여기 와 계신 학부모님들은 모두 입시에 대한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올해 주요 대학 입시 결과를 투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자를 자청하며 질문을 받던 교장 선생님은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 당황하는 듯 보였으나 주위를 둘러보더니 미소를 띠며 말했다.

“예, 여기 작년과 올해 입시를 책임졌던 3학년 부장님이 와 계십니다. 마이크를 넘겨서 들어보겠습니다.”

강당 뒤에 서 있던 3학년 부장이 앞으로 오며 마이크를 받았다. 3학년 부장은 종이를 펴더니 아직 수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음을 전제로 지금까지 받은 결과를 꼼꼼하게 읽었다. 아마 이런 질문을 대비하여 입시 결과를 정리해 온 것 같다.

“올해 합격생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서울과학대 5명, 건국대 예비 2번 포함해서 3명, 아주대 4명, 그리고 아주대는 예비 받은 학생 3명 있습니다. … 연대 1명… 한양대 2명… ”

3학년 부장은 주요대학에 합격한 서른 명을 포함해 백여 명의 수시 성적 결과를 조목조목 밝혀 나갔다. 3학년 부장은 지난주 회의시간을 통해 올해 입시 결과가 좋다고 말했다. 사실 특목고가 아닌 수도권 일반학교에서 그 정도의 성과는 자랑할 만한 것이다. 중학교 하위 90% 학생들이 입학해서 상위 10%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주요 대학에 서너 명이 아니라 삼십여 명이나 합격한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3학년 부장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여자 학부모 한 분이 손을 들었다. 마이크 줄이 닿지 않으니 나오셔서 질문해 달라고 사회자가 부탁했다. 거침없이 나온 여자는 인사말도 없이 다

짜고짜 다소 신경질적으로 질문을 했다.

“들어보니 SKY 진학 인원이 다 해서 7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학교의 SKY대학 입시 전략이 있기는 한가요?”

여자의 말이 끝나자 강당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답변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학부모가 또 손을 들었다. 답변이 이루어지기 전에 질문을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앞에 질문한 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사회자는 마이크를 넘겼다. 마이크를 전달받은 학부모는 부끄러워하며 질문을 했다.

“제 아들은 솔직히 SKY를 갈 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앞에 어머니가 질문하신 것 답변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있는 학부모 중 다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앞 질문에 대해 수군거렸던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SKY 운운하며 질문했던 그 여자 학부모는 방금 질문한 아버지를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 3학년 부장의 답변은 매우 짧았다.

“특별한 전략은 없습니다. 학교 활동을 충실히 한 학생이 대학을 잘 간다는 경험 외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3학년 부장은 전문가답게 성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입시에 실패한 구체적 예를 몇 가지나 소개하였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그 날의 입시설명회는 자신의 자녀들이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지를 듣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풀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끝이 났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예비 학부모들이 학원 설명회와 학교 설명회를 혼동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우지 못한다. 내가 근무하는 고등학교 입시설명회만 전년도 대학입시 성과를 가지고 이렇게 파행적으로 진행될까. 어쩌면 수도권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설명회 풍경은 아마 거의 비슷할 것이다. 중학교 내신 하위 90% 학생들이 이합집산해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상위 10% 대학만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욕심이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부모가 입시설명회에 와서 상위 10% 대학만을 관심에 두는 것은 기대 심리가 커서 자녀들의 현실조차 망각한 허영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육체적 정신적 격변의 3년 그 자체에 대한 관심, 학부모로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은 지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중학교 내신 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특목고 입시설명회는 어떨까. 아마 어찌면 SKY대학 실적만으로 끝없는 질문이 이어질 것이다. SKY에 진학하지 못한 수많은 특목고 졸업생들은 어찌 하나.

들어오는 신입생 중에는 상위 10% 이내의 학생이 드물다. 수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이 적지 않다. 그러한 현실에서 그들 부모의 주요 대학 타령은 서글프기만 하다. 그래서 입시설명회가 있는 날이면 아이들에게 학교가 있어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다소 어이없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오로지 서울 주요대학만 생각하는 학부모와 하루 8시간 정도는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 말이다.

전쟁 같은 입시설명회를 지켜보면 학교란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된다. 입시설명회를 치르고 나면 늘 마음이 불편하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마이크가 여기저기로 떠다니며 질문이 이어졌다.

「이 학교는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는 분위기입니까?」

「학교 급식은 재료가 좋습니까?」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높습니까?」

「입학 후 내 아이의 내적 성장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나요?」

「중도 포기한 학생이 1년에 몇 명 쯤 되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수업 중에 자는 일이 있으면 집으로 연락을 주나요?」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

「아이가 행복해지는 학교생활을 위해 부모들이 도울 일은 무엇일까요?」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니 미래의 학교에 대한 꿈이었다.